

서건도 생태·체험 관광개발 기본계획

A Master Plan for Ecological Tourism Cultivation of Seogun-do, Jeju Island

이경재¹·권전오^{2*}·장종수³

¹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 ²인천발전연구원 · ³기술사사무소 LET

I. 연구목적

환경의 시대로 정의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관광분야는 초기의 자연파괴적이고 자원소모적이었다는 자기 성찰로부터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의 생태적 접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김용근, 2001).

본 연구 대상지인 서건도는 일명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전국 5개의 바다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 중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낮은 상태이었다. 여타의 지역에서는 바다갈라짐 현상을 이용하여 각종 축제나 바다체험의 장으로서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본 대상지는 접근성 불량, 주변 관광여건의 부족, 미개발 등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건도와 주변지역 그리고 공유수면인 바닷길의 생태자원과 경관요소 등을 정밀 조사분석하여 대상지의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생태·경관 체험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내용

1. 연구대상지

연구대상지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산 1번지(서건도: 13,367m²)와 서건도로 접근하는 외곽(육지부) 일부를 포함하며 2003년 5월에서 2003년 8월(3개월)까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내용

연구내용은 계획여건분석,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으로 나누어지며 계획여건 분석에서는 본 대상지와 같이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이 있는 제부도, 무창포, 진도, 사도의 사례를 정리하였으며 인문환경에서는 대상지의 지적현황과 이용객현황, 접근 체계,

지역주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자연환경분야에서는 조석에 따른 바다갈라짐 현상과 서건도의 지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자연생태계분야에서는 식물상, 현존식생, 식물군집구조, 토양단면구조, 야생조류, 바닷가 동물상 등이 주요 조사항목이었으며 이중 토양단면 구조는 서건도 내에 수목식재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으며 그 외의 항목은 주로 대상지의 생태계현황과 아울러 자연체험자원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분석되었다.

표 1. 연구내용

연구항목		연구세부항목
계획여건 분석	사례지	제부도, 무창포, 진도, 사도의 사례분석
	인문환경	토지이용 및 지적현황, 이용객현황, 교통 및 접근체계, 지역주민 인터뷰
	자연환경	조석 및 바다갈라짐 현상, 지형 및 지질, 수계
	자연생태계	식물상, 현존식생도, 식물군집구조, 토양단면구조, 야생조류상, 바닷가동물상
	종합	종합분석
기본구상		계획개념도입, 기본방향, 공간별 도입프로그램 및 동선구상, 공간별 도입시설구상, 식재 및 복원구상
기본계획	공간별 세부 프로그램 계획	생태문화체험센터, 암석원, 바닷길 및 바다생물체험장 계획, 비밀의 정원, 경관전망공간
	식물식재 및 관리계획	상록활엽수 복원, 차폐녹지, 초본식재
	자연관찰프로그램 계획	자연관찰프로그램
	관리운영계획	관리조직, 모니터링 및 이용객 관리계획

Ⅲ. 결과 및 고찰

1. 대상지 현황 조사분석

(1) 인문환경

교통 및 접근체계 분석 결과 대상지로의 유일한 접근로인 왕복 1차선의 농로는 접근성 및 방향성이 불량하였으며 평상시의 이용객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소수이

었고 조사기간 중 최대 이용객은 25명으로 이용객이 많지 않았다. 지역 주민의 인터뷰 결과 서건도(씨근섬)의 유래는 섬의 지질인 응회암이 사람들이 밟았을 때 잘 부서짐으로 “씩었다”는 설 등 3가지 유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섬내부에 해송은 자연발생이 아니며 40년 전에 섬내부의 발농사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한 일종의 방풍림이었으며 과거 농사짓던 장소는 현재 역새밭이 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자연환경

년평균기온 16.2℃로서 난대림에 속하였으며 대상지내에는 돈나무, 까마귀쪽나무 등의 상록활엽수가 조사되었다. 바람은 겨울철에 북서풍과 여름에는 남동풍이 불며 태풍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었다.

바다갈라짐 현상은 사리때 폭 150m, 조금때 폭 70m로 갈라지며 조금과 사리때의 최대수심 변동폭은 90cm~163cm이었다. 바닷길의 길이는 235m이었으며 바닷길이 열리는 시간은 조금때 12시간 46분, 사리때는 13시간 05분(2003년 6월 기준)이었다.

지질분석결과 서건도의 남단은 제주도에서 일반적인 현무암이었으며 북단과 바닷길은 응회암이었다. 특히 이들 응회암은 독특한 지질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자연학습장활용가능하였으나 쉽게 부서지는 특성상 보호가 필요하였다.

경관분석결과 섬내부에서 외부로 향한 경관이 양호하였으며 주요 조망점에서 볼 때 바다가 갈라진 후 형성되는 바닷길, 한라산, 범섬과 문섬(서귀포시 남단의 큰 섬), 해안선과 해안마을 등이 주요 조망경관이었다.

(3) 자연생태계

식물상 조사결과 해송 등 교목 3종과 돈나무, 까마귀쪽나무 등 아교목 및 관목 10종을 포함하여 총 66종류가 조사되었으며 특히 꽃이 아름다워 활용가능성이 큰 초본은 바늘엉겅퀴, 구절초, 갯쭉부쟁이, 갯기름나물, 벌노랑이 등이 조사되었다. 서건도 내부의 현존식생을 조사한 결과 23%가 해송이 분포하였으며 까마귀쪽나무 등의 아교목 및 관목이 26%, 참억새 등 초본식물분포가 42%, 암반 노출지가 8%이었다. 식물군집구조 조사결과 종수 및 종다양도는 낮은 상태이었으며 토양단면 조사결과 토심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해송림지역과 역새군락지는 교목의 생육에 지장

이 없는 토심을 확보하고 있었다.

서건도 내부의 야생조류는 빈약하여 환경교육의 중심 주제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태이었으며 바닷가 동물로는 다양한 모양의 고둥, 게, 갯강구, 거북손, 담치 등이 관찰되었고 주변 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종으로는 성게(여름)와 소라(이외 계절)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서건도와 주변지역의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대상지가 갖는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계획의 목적을 “서건도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을 위한 생태·체험 관광개발”에 두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4가지를 설정하였는데 첫째 자연의 잠재력을 극대화한 공원, 둘째 기존의 불거리 위주에서 체험중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공원, 셋째, 자연의 신비와 경관미를 체험·학습하는 공원, 넷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원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바닷길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바다체험 Zone을 설정하였고 서건도 섬을 중심으로 생태·경관체험 Zone을 설정하여 계획하였다.

바다체험 Zone의 주요 프로그램은 바다생물을 체험하는 공간, 바닷길 정비 및 수표석(줍녀상) 설치, 탐방객안내소 및 주차장, 야외휴게공간 및 암석원, 정문 및 진입로 등이었으며 생태·경관 체험 Zone의 주요 프로그램은 경관전망공간(한라산, 주변섬, 바다 등), 비밀의 정원, 식생보완 및 복원, 자연 및 경관관찰로, 지질학습공간 등이었다.